



청소년들의 뜨거운 기도

2000년
8월 15일
제 24 호

(1998년 9월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충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인도 비하르주에 성령폭발 특별작전 개시

- 10개 관문도시에서 김주환목사 등 30명 기도일꾼 참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조남진장로)는 자매도시인 인도 비하르 파르나시 10개 관문도시에서 오는 9월9~16일까지 파르나시민대상 전도대성회를 열고 기도세미나를 개최한다.

초교파적으로 동참하는 30명의 전도팀은 10개관문 도시별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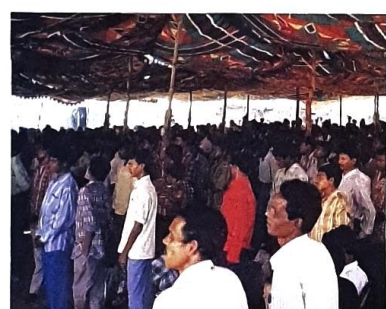
치되어 현지인들과 같이 속삭이면서 인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와 사탄을 대적하는 전투적인 기도를 벌이게 된다.

금번 파르나시민 전도대성회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를 주강사로 초청하고 김성수 목사와 현지인 목사를 기도세미나 강사로

세운다.

지난해 전도집회와 기도세미나는 조은제 장로 등 평신도들로 구성된 사역자들이 담당해왔다. 조은제 기정회 부부는 아들(평생)을 세계적인 선교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 인도현지로 파송하는 등 헌신하고 지역인 인도신교에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 금번 행사는 국제 예수가족과 인도파르나 예수가족(이영길 선교사)이 주관한다. 금번 전도대성회 기도세미나 중보기도를 통해 파르나시의 성시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춘천 성시일꾼들은 소망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성시화기도모임 교회방문으로 활력화 기대

- 방문교회서 예배주관 월1회 초교파연합기도 -

춘천성시본부(본부장 조남진장로)와 성시화기도모임(대표 허종구장로)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월1회 시내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성도들과 성시화위원회가 한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춘천도성을 성시화하는데 최고의 무기는 함께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순회방문해서 함께 기도드리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말

했다.

성시화기도모임은 91년부터 현재까지 World Vision춘천총합사회 복지단 3층 대강당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연중무휴로 계속되고 있다. 8월30일 저녁7시30분 중앙장로교회(사공 정목사)를 출발로 실시되는 교회방문 기도모임은 수요일 저녁예배로 드리기로 했으며 예배순서 등 모든 준비는 당회교회가 담당하고 성시화기도모임에서는 합심기도를 인도하게 된다. 월드비전에서 열리는 성시기도

모임은 교회별로 남영신교회 청년회 또는 전교인이 참여하고, 사회와 합심기도인도를 제외한 모든 순서를 주관한다. 앞으로 모든 교회는 동 기도모임을 통해서 성시운동

을 지원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방문교회 결정은 신청하는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고 신청교회가 없을 경우, 기도모임에서 직접 요청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순천성시화기도모임소

대표 허종구장로(중앙성결교회)
총무 유근찬수집사(순복음춘천교회, 강원대교수)
예배부장 신종철안수집사(소양성결교회, CBS소녀합창단장)
TEL. (033)256-1260 성시본부
011-387-6423(유근찬) / 011-369-1078(신종철)

8.15 광복절 기념 초교파 연합예배 드려

- 동부교회 새성전에서 교역자연 주최, 김동완목사 설교 -

춘천지역 기독교교역자연합회장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는 8월13일 오후7시30분 동부장로교회에서 초교파 목회자와 성도들, 국회의원, 기관단체장등 1천5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북통일을 소망하는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다. 이날 김진선 도지사는 예배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권오서목사는 연합회장 취임 후 첫

사업으로 8.15광복절연합예배를 주리는 북한동포를 위해 사용했다. 은혜롭게 드렸으며 이날 헌금은 굶



화해와 통일을 위한 백두대간 햇불산상기도회 개최

강원도와 강원도기독교연합회 공동으로 8.15광복절을 기해 이 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국가와 강원도정, 도민의 삶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후6시부터 평창군 용평 그란나인 리조트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기도회 준비위원장 권오서목사는 기독교 역사 이래 처음있는 기도 행사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사는 8월25일 오후6시 기독교 지도자 만찬에 이어 7시부터 기도

회가 열리고 8시~10시까지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인도로 특별기도를 갖는다. 도내 기독교인은 누구나 기도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대구성시본부 성시신문 창간

대구성시본부(본부장 조돈제목사)는 대구성시화를 위한 줄리클럽 창립을 기해 6월20일 "대구경북성시신문"을 창간했다.

창간호는 99년 9월에 발행된 것을 두번째로 창간호를 보게

된 것이다. 춘천성시본부 관계자들은 신문창간을 환영하고 축하하면서 대구시는 물론 영남지역 성시화 운동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추진에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리핀 원주민 구원 위한 단기선교 떠나

- 원기배목사, 김부희장로 청년 16명과 함께 현지선교 체험차 -

광장감리교회(원기배 목사)는 8월10~18일까지 필리핀 원주민 선교를 위해 원(原)교육 동 사전 준비를 마친 교회청년 16명과 함

께 현지 선교체험을 떠났다. 교회 선교팀은 오존년, 반타올리아나, 아이타족을 대상으로 선교체험 기회를 갖고 한인교회인 예은교회,

마야도교회를 방문해 및 문화향유에 참여하는 뜻깊은 선교여행을 하게 된다.

바자회 물품 수집합니다

구세군북춘천원(담임사관 부원 홍봉식)별칭 북춘천봉사센터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불우이웃들이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모집품목- 의류, 악세서리, 도서, 기탁
■문의처- 033)243-7359 / 011-9901-6191 홍봉식 사관

8.15 광복을 여호와께 감사 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석사교회



담임목사
임택장

교회주소 춘천시 효자2동 651
교회사무실 (033) 253-2741 FAX (033) 241-274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주환

교회주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651
교회사무실 (033) 253-2741 FAX (033) 241-274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교회주소 강원도 춘천시 요산동 114
교회사무실 (033) 253-2004 FAX (033) 244-300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제일교회



담임목사
하기희

교회주소 춘천시 효자1동 591-45
교회사무실 (033) 257-3511-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열린교회



담임목사
신성균

교회주소 춘천시 회계동 426-8
교회사무실 (033) 253-7227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찬

교회주소 춘천시 근교동 716-30
교회사무실 (033) 243-0319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사공정

교회주소 춘천시 회계동 669-2
교회사무실 (033) 257-2001 FAX (033) 257-2002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주장로교회



담임목사
박명재

교회주소 춘천시 효자2동 산26-1
교회사무실 (033) 261-5218

사설

성시화의 지름길은 있는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성시화(聖市化)의 기준을 시민 50%의 기독교인화 두고 각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에 대해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회의적이거나 방관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더 많은것을 성시화운동 과정에서 보게된다. 춘천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성시화운동의 지름길을 논한다면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상호전제로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면 천도천택의 실현성 결여와 개교회 이익 우선적 사고도, 성시화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방관과 회피적인 사고의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7월 전국대학생들과 교회가 팀워크로 시민을 천도한 결과 7천명을 예수신앙에 돌린다는 실적을 올렸다.

그들 중 몇사람이나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확실하지만 교회와 합심하여 천도한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춘천에는 25만여 시민 구원을 위해 3백55여개 교회에 4만5백여 성도들이 전도자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해에 7천명을 천도한다면 10년 걸려야 시민 50%를 예수신앙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천도는 기하급수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만 성시화란 실현성이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가 바라는 성시화 수준은 현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성도들의 마음에 따라서 부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는 조건이 따른다.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은 부패한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부분

이리도 소생시킬 역할을 잃고 무능한 상태로 사회속에 흡수되고 있다. 성시화의 우선 과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이고 두 번째로 천도율이다. 50%가 교회내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시화는 실현되고 시민의 50%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보다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춘천의 기관, 단체, 학원, 기업체등 모든 영역이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될 것이며 교회와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변화할 때 성시화의 지름길은 트이게 될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교인들이 특시를 타던 에어리프 없나고 책망하듯 말하고 돌아가기 힘든 골목 골짜기에서 하차할 때 거스름 돈은 1백원까지도 약탈같이 받으면서 "예수민이세요"라고 할때면 "당신같은 사람 볼 수가 싫어 안 믿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덕방에 들면 두사람은 "교인들은 골짜기론 존재야"라고 말한다. 부동산 매입전까지는 간을 빼 줄 듯 하지만 일이 끝나면 아랑곳하지 않고 복비 깎는 데는 도사들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인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한다. 교회에서는 우등생인데 사회생활에서는 낙제생이래면 실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시화란 행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교인들이 먼저 성시화 되어야 그 힘을 통해 시민 50%이상을 기독교인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성시화의 열쇠와 지름길은 생활신앙의 실천여부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전교인 수련회로 믿음의 불붙인 제일장로교회
- 남이섬방아리 기화유스호스텔에서 3일간 영성훈련 -

춘천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박상호)는 7월24~26일까지 춘천시남면방아리 기화유스호스텔에서 3일간 전교인 수련회를 갖고 심신을 단련하고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했다.

개회예배와 부서별교육, 오포니페스티벌, 찬양 및 말씀사경회, 부서별기도회, 에어로빅체조, 명상운동회, 삼각관구대행진,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고등부 학생들은 계속해서 해양안전, 경전시단, DDR대회 등 1일간 훈련을 더 실시했다.

박상호 목사는 "여호와와의 섬김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선행하는 수련회가 큰 은혜의 복을받는 귀중한 공동체로써 "돈"에서 사가는 교회"되기를 소원했으며 안으로는 교육과 친교를 밖으로는 천도와

선교, 사회,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룡 원로장로(전 춘천기독교장로회 협회장)는 우리나라 기독교전례사를 언급하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교회와 성립되기까지의 모습과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열매 경로를 살펴보고 싶었다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또 이순창장로(원도비전춘천총합사회복지관장)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한자, 배양간자, 굶주린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독교 교리 때문이라며 우리는 인간을 비참한 곳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특전으로 여겨야 한다고 사회참여 신앙을 강조했다.

감리교 전국남선교회 선교대회 은혜충만

전국남선교회(회장 장구복장로)는 8월 7~9일까지 청성 현대성우리조트에서 전국교회 5백명이 참가해 성령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리교 전국남선교회 선교대회를 치렀다. 첫날 대회는 석사교회의 주관으로 임택창목사의 영성

훈련에 대한 특강, 이학규장로 대표기도, 석사교회성가대 80명의 찬양이 있었고 둘째날은 원주대장교회 박성혁목사의 설교와 황정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선교대회를 통한 신앙수련은 성령충만했다.

오늘의 묵상
장미나무가 된 가시나무

골짜기에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는 것이었다.

"아! 볼수록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내가 장미나무가 되다니,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야!"

어름이 되어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 나무에도 피었다. 그것을 보면서 정원사가 말했다. "본래 너는 가시나무였으나 장미를 접붙여 이제 장미나무가 되었으니 아무도 너를 가시나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장미꽃을 통해 구원에 주셨다. 천지창조 때 생명이 없는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되셨다. 이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집인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넉넉히 이기리라!
(로마서 8:31~39)



송영진 목사

대진총신장로교회
대한기독교장로회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랑하는 직장선교회원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만 참으로 귀중하고 은혜스러운 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즐겨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값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복수 같이 우리를 감싸서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겠느냐? 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생활..." 둘째로, "죄..." 셋째로, "한 강..."

사랑하는 직장선교회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 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겨놓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투는 신앙을 갖고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교교회 농산물로 성시모임 기쁨 나눠
- 교회와 마을 위해 중보기도기로, 농산물 사랑냄쳐 -

성시화기도모임은 8월10일 오후7시30분 춘천 북산전 조교리에 위치한 조교조교교회 박성규 목사를 설교자로 초청, 농촌 오지교회의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소식을 들었다. 두시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노부부 집사의 이야기는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야하는 도시 교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었고, 재산목적인 황소가 쓰러져 죽어갈 때 천교인들이 둘러서서 천송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과 술을 끊지 못하고 예수는 마누라가 있어도 집안일이 안된다고 구타를 일삼으며 비난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밤낮없이 기도하는 이 집사의 이야기는 기도모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마음으로 진심하는 도로게사로 입자, 불당, 신당들이 사방에 자리잡아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5백여명이 거처한다는 내용은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다.

박 목사는 이날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편곡수수와 호박,고추 농산물 4상자를 나누어 주었다. 선물을 받은 성시기도모임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공급한 조교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성령에서 지배하는 마을이 되기를 기도드리기로 했다고 한다.

춘천지역 장로교 주일연합예배 새로운 모습

한강면 춘천지역연합회 회장 박상호 목사(제일교회)는 8월 6일 오후7시30분 제일교회에서 140여명의 성도들이 하나의 장로교 모습으로 연합하여 장로교 주일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연합회 부회장 사공정목사(중앙교회)의 사회로 영대성목사(한빛교회)의 "여호와께서 인강하시니" 메시지 선포와 김홍규장로(동부교회)대표기도, 춘천제일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었으며 김민일신복교회 원로목사의 축사와 춘천기독교교역자협의회장 권오석목사(중앙감리교

회)의 축사가 있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장로교주일 연합예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장로교의 진정한 연합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독자여러분의 질책과
고견을 기대합니다

춘천성시신문은 98년 9월15일 창간하여 오는 9월15일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춘천성시화를 소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중단없이 발행할 수 있었고 보다 필요한 신문물을 만들기 위해 성시본부 일꾼들과 운영위원, 명예기자들이 심혈을 쏟고 있으나 쉽지 않은것을 깨닫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년을 맞아 독자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책과 고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성시신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원고를 보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2매까지로 기종으로 작게는 1~2매(A4)로 크게는 5~6매(A4 2장이내)를 다음방법으로 9월7일까지 보내주시요

- ▲ 우편발송 - 강원도 춘천시 효지1동 373-90 일도비전 내 1F
- ▲ FAX발송 - (033)257-1260
- ▲ E-Mail - KIBIBLE2@HOLYNET.NET / kibible2@hosanna.net
- ▲ Webmaster@holyc.org
- ▲ http://www.holyc.org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 문의전화 - (033)256-1260

성시(聖市)변호사 전용태 장로의 사명



전용태 변호사

전 춘천·대구지법법정장 검사장
현 부패방지 특별위원회의 위원

"주업은 천도, 부업은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검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사람들이 군함을 물어오면 내 대답은 항상 이렇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30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것은 내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부업은 검사직이며 주업이 잘 될때 부업은 저절로 따라서 잘 된다는 것이다. 천도 많이 하고 성경암송 할 때 검사장 승진도 되었다. 그래서 나는 늘 드러내놓고 예수

님을 믿어왔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고 증거할 수 있기까지는 사실 갈등도 많았다. 열살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양차원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것은 13년 전이다.

그때 내 생애 최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아내 최호자 권사가 난소암에 걸린 것이다. 곧 죽음수도 있는 질병이기에 나는 홀리나리는 통곡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인생의 희망을 잃은 시련 108만 만을 함께 외치고 견뎌왔다.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 이때 내가 절한 것은 주일성수,성경공부,천도였다. 이것은 아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든지 아내를 한번씩 해주고 싶었다. 1주일이면 줄인 성경공부를 하되 내가 천도한 사람들과 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안방문을 열고 새로 천도한 사람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나는 철야되었고 영혼이 죽었다는 실마리는 복을 받았다. 천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 술을 끊고 교회에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인데 때 없는 사람이 왜 목욕탕에 가느냐고 반문한다. 또 믿음의 유익성과 무생명에 대해 설명해 준다. 지옥없는 사후세계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과 만약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손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대부분 그날에 수감하며 교회로 향한다. 그리고 보고 믿으려고 할 때는 안보이는 데 주어진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면 열면 논쟁도 사라진다. 요즘 내 소망은 개인천도의 자원을 뛰어들어 도시와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시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의 영혼이 바다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지 국민의 25%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중한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예수존진, 교

통시방사교 세계1위, 세계에 알려진 '비물공복'이라는 오명, '가정폭력가'까지 요구하는 악덕기업주. 하루 110명의 이혼, 곳곳에 만연한 범죄와 부패... 하지만 이렇게 씩어가는 한 도시와 지역을 통해 하나님께, 기복한 것으로 만들어 복음

-아내는 난소암 치료 통해 13년전부터 천도자 생활-
-성시교도소설임 운영 범죄없는 사회실현 전범부구-
-천도 많이 할때 검사장 승진도-

의 장미꽃이 피는 도시, 범죄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성시운동의 물결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춘천,청주,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 준다. 성시운동은 성시본부를 중심으로 교회,가정,직장이 유기체를 이루어 교회부흥운동,사회정화운동,가정복합운동,직장윤리운동으로 구제되고 있다. 지금 대구에서 는 이를 위해 성시본부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초교파적으로 하나가 되어 동역하고 있는데 이 속이 먼저 다른 도시에서 문이 소대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성시운동에 전념하다보니 내 발명은 어느새 '성시번호'가 됐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 범죄로 물들어가는 이 도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성시운동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성시교도소다. 나는 성시교도소가 설립되면 대한민국 복음화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고 재발출도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민간교도소법이라는 옥중에 같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법이 한 기독교단체가 200~300여인 정도를 들여 교도소를 만들어 국가에 바친 후 기독교인이 직접 직원으로 들어가 마음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추진하여 기적으로 통과되었는데 지금 화시는 자금이 없어 못하겠다고 포기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발단 기도하고 있다. 성시 신앙인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 성시교도소를 설립해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춘천시시회를 위한 총력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 학 경 조
춘천시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석사감리교회

2000년 7월 춘천시시회를 위한 총력전 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동창에 주신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천시시회를 위한 진도대회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성시화의 작품이었다. 금년 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 조은제 강로님과 기정희 전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업이 발돋움 되었습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찬목사)는 임원회를 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합의하고 동연합회가 주최하고 성시화운동본부와 대학생신교단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되 실제 주역은 CCC가 맡기로 결정 하였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에서는 뜨거운 중보기도를 올리고 내차애의 기독교연합회 임원회, 내차애의 실행위원 조찬기도회, 새차애의 공문방송 협조회,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였고 총력전도 참가 70교회를 확보, 목회자를 모시고 새차애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대학생신교회 여름수련회에서 영적으로 무장된 대학생 1,100명을 선발하여 춘천 대령군도로부터 춘천까지 운송하는 29개 교회와 171명 차량지원, 12교회 3개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전도요원 숙식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교회를 지원, 전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도지와 현수막 제작은 베드로병원 선교센터에서, 전도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은 영

광한원과 베드로병원의 후원으로 구입 지원하였으며 진도를 신실한 교회는 자체 전도요원을 선발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합류하여 책전도를 하였다.

이번 전도대회에는 화천과 홍천의 일부 교회에서도 참여하였다.

대학생전도요원들은 7월7일 12시 석사감리교회에서 결단예배를 드렸다. 임택창 목사(석사감리교회)는 설교를 통해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사명이며 전도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눈치껏 알고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뜨거운 합심기도 후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교회별로 파송되어 오후부터 노방전도에 임하여 3일간 1,740여명이 전도한 수는 시인 50,000여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지를 전했으며 7,000여명에게 사영리전도를 실시하였고 3,300여명의 결신자를 대제독으로 수확을 거두었다.

마지막 날 호반체육관을 가득 메운 총력전도대회는 최성규목사(순복음인교회 당회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재결신의 시간이 되었고 찬양과 선교대언도 시범은 모인 사람들을 뜨겁게 감동시켰다.

이번 전도대회의 성과는 교회의 일치된 연합, 교회의 식연된 전도열의 제철화, 그리스도의 젊은 일꾼들에게 실천적 전도훈련의 계기 마련, 전도열기의 확산과 전도분위기 조성, 기독교인의 연합된 영역공격으로 마지를 몰아내는 역사 등 다 많은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총력전도와 연결하여 성시화운동주간 행사로 교회별 청소년화운동 전개, 도정차와 성시화를 위한 조찬기도회 개최, 총력전도를 위한 특별기도, 직장인 연합선교대회 등 열거없이 많은 활동을 하였다.

춘천시가 생긴 후 처음 일어난 이번 춘천시시화전도대회는 교회와 목회자 선교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번 전도대회는 해마다 있어야 하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전도요원들이 전도에 참가한 성도들 그리고 춘천CCC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농협지역본부 업적평가 전국 종합2위 달성

- 한원택안수집사 석사동지점, 최우수 점포로 선정 -

강원농협지역본부는 7월25일 오전10시 춘천베스타호텔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전국 시도별 종합업적평가 2위 달성을 축하하고 우수 조합과 지점에 대한 상이 있었다.

그중 석사동지점(한원택 지점장)은 수

익성, 생산성, 지축성, 신학, 채권관리등 총 8개 항목에서 종합1위로 선정, 전국 최우수 지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한원택 지점장은 동부강로교회 안수집사로써 농협지점장으로서의 큰 활약소가 되고 있다.

IPU 한국이사회 의장에 선출된 한승수의원



한승수의원은 韓昇休의원(민주당, 춘천)을 IPU 국제의원연맹 한국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韓의원은 국외차원의 외교활동의 무거운 부담을 맡게 되었고 오는 8월30일부

9월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국회의장 회의에 국회의장과 함께 참석해 임기 2년의 IPU이사회 의장으로써 활동을 시작한다.

경제부총리, 주미대사로 활동했던 韓의원은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영국 경제학회 총신회장, 국제경제학회 집행이사 등의 직책을 맡고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기독교인들은 춘천시시화운동본부에 모든 영역에서 성도(聖徒)를 만드는 일에 그의 역량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45차 여름연찬회

한국교육자선교회는 8월7~9일까지 경기도 수원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에서 2천여명의 교육자들이 모여 교육자대회와 연찬을 가졌다.

동선교회는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였으며 이학규장로(석사교회)는 기독교 교육자료 선포문식과 활용에 관한 주제강연을 했다.

제2회 전국기독교사 선교대회 개최

전국기독교사회는 8월15~17일까지 청주교원대학에서 20여개 지역교회가 연합으로 한자리에 모여 선교대회를 개최하며 많은 신앙수련을 받았다. 수십명의

국내 유명 강사를 통한 강의 및 영성강의가 있었고 춘천시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 학규장로는 선교대회에서 "기독교적 학교경영 방안"에 대한 주제강연을 했다.

김준희 목사 일본선교 활동소식



일본인교회 김준희 선교교사(성경교단, 춘천)는 7월17~31일까지 일본 규슈 구마모토와 후쿠오카 등 5개 지역을 순

간중과 말씀을 전하였다. 이번 전도를 통해서 20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미선우상이 가득하고 척박한 일본땅에도 일본교회 성도들의 전도와 한국인 선교사들의 실재함, 방문, 노방전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일본인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건물들 세에이 말씀을 전했고 거리전도를 실시했으며 신생(新生)교회가 있는 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건물에 옮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일본교회 춘천시 교동 113-63 ☎ 033)254-7441 김준희 선교교사

교계 단신

◆춘천중앙감리교회(차관석목사)는 7월23일 인근 경로당 회원 150명을 초청 총동원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마련하여 경로당지를 배설했으며 7월26-29일까지 주문전에 있는 강원도대학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다. 남신교회원들은 8월7-9일까지 황천동내원대성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남신교회에 참가해 '시대'에 쓰임받는 새인군이 되자'는 주제하에 영적훈련과 심신훈련을 받았다.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는 8월4일 교회대배설과 오월기도원에서 간월리, 할평야구 등 5개 성가대가 연합하여 찬양연합수련회를 열었다.

◆오산성교회(방지선목사)청년부는 8월7~10일 저당감리교회에서 청년부수련회를 가졌다.

◆춘천중앙감리교회(서광 정목사)청년부는 8월24~26일 강릉에서 청년부수련회를 연다.

◆중앙성교회(윤정종 목사)대학청년부는 8월12~19일 태극치양미로 단기선교를 떠난다.

◆평화감리교회(한 군목사)는 2001년 1월경 20년간의 인도 지교회 방문과 훈련을 위한 삼촌 재2차 단기선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처 : 018-374-5436 김성일 선교목사)

◆용천군신우회(김차경 회장)는 8월28일 오후7시 용천군 화천면 구성포리 신내교회(장진호 목사)에서 8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직장복음화와 교회일치를 위한 기도회와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동부교회 평신도회(회장 장봉장목사)는 8월7일부터 9일까지 황천동 둔대면 성우유스 호텔에서 원주대교회 박성혁 목사와 춘천석사교회 임택창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새 시대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성회를 열었다.

◆영광면 목사(윤천만교회)는 서울자교회(이승호 목사)와 8월14일부터 17일까지 용천 장전기도원(장재권 전도사)에서 여관산삼교회를 인도했다.

◆이상순 성서신명회(가정전도부)는 8월7일부터 10일까지 양광대안수도원에서 열린 감리교 협성부흥회와 제7차 연합성회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였다.

선교회 소식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황영찬목사)는 7월15일 낮12시 형제집에서 춘천시시화를 위한 총력전도대회 결과보고회를 하고 임영일 안수집사(춘천침례교회)가 마련한 거위 요리 만찬으로 자축했다.

◆춘천기독교장로회연합회(회장 김용배장로)는 7월22일 오후1시30분 연합선교대회 결과보고회를 가졌으며 8월29일 화요일 낮12시 동부교회에서 춘천교대, 한림대학선교회가 순서를 담당하고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의 설교로 정오예배를 드린다.

◆예수제자운동(대표 윤태호목사)은 8월7~11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예수사람 예수세상'이란 주제로 기독교적영성 여름수양회를 개최했다.

聖市漫評

김준배



8.15 상봉의 두감격, 진정한 통일과 화해

순복음교회 전국장로연합회 하계수련회 개최

- 강사 최성규목사, 이윤구 인제대총장, 이학규장로 강회사양관에서 -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전국장로연합회(조남진장로)는 8월25,26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신두리856-5 선두수양관에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장로들과 함께 여름수련회를 갖고 장로의 사역과 교회 부흥을 위한 강의와 신앙향상과 체력 증진

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합회는 특별강사로 인제대 총장 이윤구 박사과 이학규장로(춘천시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를 초청했으며 총회장 최성규 목사와 서울서부지방교회 강종남 목사가 강의를 맡았다.



호신장로교회는 7월18일부터 23일까지 '돈든지 서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7월19~21일까지 "승리를 찾아 떠나는 대모험.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하에 여름성경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춘천재림성교회 박성호 목사는 7월20일 오후7시30분 남신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시화 기도모임에 참석, 예배를 주관했다. (설교 박성호목사, 기도 박동성장로, 남성준장로 찬양)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서본부, CCC대학생선교회는 총력전도대회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7월 성시선교 후원자 명단

- | | |
|--|---|
| <p>☆장기후원자님☆</p> <p>왕순옥 안정숙 이병연 김현철 설기은 정유양 최상호 한희현 안미애 춘천원일교회(신성균 목사)</p> <p>홍순복 임은경 정순녀 김기태 김진현 최경용 이준태 허광웅 정찬남 조정임 홍성운 정용원 황병찬 오희수 박동현 조영국 엄필남 유태희 이학규 윤진옥 정성진 민병철 한순수 유근창 조남진 김명연 조충환 김원호 이경숙</p> <p>☆평생후원자님☆</p> <p>이병찬 최성규 안순수</p> <p>☆초교마우원교회☆</p> <p>순복음춘천교회(김주현 목사)</p> <p>춘천은혜장로교회(지용찬 목사)</p> <p>춘천양문순복음교회(김길홍 목사)</p> | <p>춘천시암중앙성경교회(최상도 목사)</p> <p>춘천원일교회(이은주 목사)</p> <p>춘천원일교회(신성균 목사)</p> <p>춘천석사감리교회(임택창 목사)</p> <p>춘천방주장로교회(박필자 목사)</p> <p>춘천순복음제일교회(하지철 목사)</p> <p>춘천늘사랑장로교회(정재호 목사)</p> <p>춘천소양성경교회(이원호 목사)</p> <p>☆단기후원자님☆</p> <p>신종철(유성전철)</p> <p>이윤규(영광교회)</p> <p>조은제(베드로병원)</p> <p>여정임(문순영양양/한나미용실)</p> <p>이반호 윤영순(알로에마일)</p> <p>이익래 조순숙(솔로몬기념)</p> <p>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대표회장 허종규)</p> |
|--|---|

본지는 하나님 교회와 문신선교를 위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많은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성시후원계좌 (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변경명 계좌번호입니다)
농협 203-02-280238
저축은행 716-01-001389
제일은행 625-20-265119
국민은행 301-01-0585-522

CCF 인도비하르 선교의 날 예배 드려

- 야생화, 30일기도책자 보급, 중보기도 방법 제시 -
- 이영길선교사 선교지역 영상보고 감동적 동참동기부여 -
- 국제예수가족 추천, 파트나예수가족 CCF회원 연합예배로 -

CCF대표 박인관 목사(평원교회)는 8월6일 오후2시 본교에서 10개교회 교회와 국제예수가족(대표 허문영박사), 춘천예수가족, 비하르후원회 회원들이 함께 "비하르선교의 날" 예배를 드렸다.

박인관목사의 사회로 피종호목사(나눔교회, 후원회장)설교, 고재현목사(영락교회)기도, 조충환목사의 축사, 허문영목사의 선교약사 보고, CCF총무 조영준목

사(예광교회)한국기도, 광고 김종호목사(효자교회)축사가 있었으며 오는 9월10~16일까지 비하르주 파트나시에 단기 선교 참가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또 이영길 선교사의 비하르 선교지역과 계획에 대한 영상보고는 구성과 내용 모두 감동적이며 성도들의 후원참여 동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충분했다.

예수가족은 인도비하르 선교와 재정화

보를 위해 역 "무자" 헌두인구원30일 기도내용을 담은 소책자와 야생화를 보급하고 있다.

야생화본 2점과 기도책자 1권에 1만 원으로 야생화는 매일 2회 물을 주어야 한다. 인도헌두인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분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야생화에 매일 물을 주면서 중보기도에 동참할 것을 바라고 있다.



수 비하르-야생화 30일 기도운동 연락처

TEL. 033)242-0191/261-7727/262-8150/252-8219
위치: 춘천시 중영로3기 60-11 예수가족
※ 야생화본 10집 이상 신청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도청신우회 선교활동

간원도청신우회(회장 김영명)는 8월7일 오후6시30분 도청회의실에서 회원 회의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선교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총무부(박일수)에서는 회의운영관리, 회원지원 등 변동관리, 도서관소와 연합활동, 회계관리를 하고 선교부(양승일)는 춘천성서회와 협력, 전직원대성 선교할

동, 직장가정의 문제 회원 위문력려, 연합신교활동 협력, 부활절 등 전직원 대성 활동을 하며 성서부(양광현)는 신우회소식 정보관리, 성서신문 등 기독교소식 민원실 후계설 비지, 정오예배 참석, 영적성장 위한 일을 한다. 전양부(김석주)는 찬양단 조직운영, 직장신교예배 참가, 예배시와 기타 찬양활동을 하고 기도부(박재복)는

제철 산상기도, 정기 및 특별기도회를 실시하며 불사부(원동인)는 장애인 불우시설 방문봉사, 어려운 직원들기 등을 하기로 했다. 인원은 회장 김영명 부회장 최형선 이명숙 총무 박일수 서기 이상진 회계 김고익 양이다. 그간 철제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도청 기독교인들의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해 춘천성서회를 열망하는 기독교인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시대 흐름에 앞선 여름성경학교

- 교회밖의 시설 활용한 은혜교회 학생수련 -

춘천은혜교회(지용관 목사)는 금년 어린이여름성경학교를 교회시설 안에서 실시하던 춘천법원에서 탈피, 국내 우수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 운영했다.

청년부는 7월16~19일까지 속초 젊은교회당에서 "해마2000"이란 주제로 깊은 태고목욕사의 지도하에 영성수련회를 가졌으며 중고등부는 7월24~27일까지 "가평민들기"에서 열린 동고단 전국중고등부연합 영성수련회에 참가해 "성령의 능력"을 21세기 세대의 주역이 되자"란 주제 아래 말씀과 기도영성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초등부는 7월24~26일까지 양주군 꽃동산기도원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자"는 주제로 유명전문가들의 지도로 성경캠프, 부흥회, 인형극, 태권예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체험토록 했다.

전교인들은 이번 수련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믿음성장을 위해 교회에 모여 7월 첫 주부터 매일 저녁 중보기도하고 수련장을 방문, 격려하고 기도과 물결로 협력했다.



국내의 유명강사 특강테이프 무료보급

- 오정현 목사, 로렌커닝햄 총재 강연, 성경공부 내용 -

한국기독교선교인회는 8월17일부터19일까지 경주보문단지에서 위치한 현대호텔에서 기독교선교인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내일의 지도자를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최창근 명예회장의 인도로 교회예배를 드리고 오정현목사(미국 한국교회OM선교회 이사장)의 성경공부 시간과 로렌커닝햄 총재(국제예수전도단)의 특강이 있었다.

강원연합춘천지회(회장 송순규)에서는 성경공부 및 특강에 관한 테이프를 직접 구입하여 강원지역의 복음화, 성서화를 위해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 테이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독교선교인회로 연락주시면 대까지 우송해 드립니다.
☎ 033)257-4532 / FAX 033)241-4532

로암선교회 오지 중고생 수련회 운영

춘천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로암(路岩)선교회(회장 김문영목사)는 7월31일~8월2일까지 지난 가을 1개월간 교육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Home Coming Day)를 마련, 단기수련

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을 선교회원들이 마련 지원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로암선교사업에 모든 교회가 앞장서 협력해야 할 것이란 관제자는 말했다.

"사망선고 받은 무화과나무; 때가 아님에?" (막11:12-25)



변 석 규 목사
(춘천신림로교회)

비서철인 요름 동해안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는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 한달 전만해도 그 길은 뻗뻗 뚫려 있지 않았는가?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이 어부들을 불렀듯이, 비서철 인파로 뚫힌 뚫에서 일꾼을 부르셨다면, 아니 신앙의 열매를 찾으셨다면, 분노할텐데 그들은 다름 아닌 경전의 모양을 가진 신자였던 것이다. 그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고, 성경공부도 했으며, 직장에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만의 휴식을 즐긴다 하려는 것을 누가 강히 비판하리.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 한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의 사건 기록이다. 아침 일찍 조반을 드시지 않고 떠난 터 매우 신장했다. 그래서 외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다가가 열매를 찾았지만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대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대(나무를 굴출히 여김)를 저버리고 나무를 저주하신다. 예상치 못한 주님의 행동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황하게 된다. 마치 주님께서 자연의 이치

와 섭리를 거역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 새 생명을 창조하고, 치유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아 오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님의 행동은 우리를 더욱 당황케 한다. 이 당황스런 사건을 통해서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첫째로 무화과나무에 관한 이야기의 한 복판에 성전을 경화하시는 주님의 파격적인 사건이 놓여 있다는 것을 독자는 놓치지 않는 된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꽂쳐 있는 성전을 주님은 성경케 하셨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유월절 준비를 위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합법적이며, 타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칠한 심령이었다. 성전의 화려함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 즉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굴혈"로 변질된 것에 분노하셨다.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저주와 정화를 더욱 강조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의 암시다. 둘째로, 본문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제칠을 맞이하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과 그의 권위("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셨는가")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다. 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비록 제칠 아닌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는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고

유 권한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는가? 그런데 피조물은 아직 제재가 아니라고 아우성이다. 인간의 때와 하나님 때에 대한 분별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도저히 감히 입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던가? 우리는 우리의 때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경향이 하나님 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 신앙과 전통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집착이 메시자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 것지.

마침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숨었듯이, 유대인들(무화과나무) 역시 하나님께서 즐거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고 무성한 잎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 했다. 우리 역시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장하고 있진 않는가? 교인의 숫자로, 화려한 성전으로, 예배의식으로, 성경공부, 기도, 성장이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말미암는다.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는 없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주강하기 보다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리라. 주님 앞에서 내 때를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를 하는 때라는 인식을 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 은혜화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십자가 상에 자신을 못 박는 사망선고는 주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며,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께 배부름을 제공할 수 있는 거룩한 제물임을 깨닫자!

예수사람운동 학생영성수련 뜨거웠다

춘천예수사람운동(대표 박상철 목사·제일성결교회)은 학원복음화에 목표를 세우고 중고등학교에 기독교동리를 만들어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14명의 진도자를 양성하여 학교 외에도 일론 및 거리전도를 하고 있다.

7월3일~8월3일까지 석사동에 있는 춘천제일성결교회 신축공사중인 시설에서 "가라 모세"라는 주제아래 120명의 남학생을 대



로써 경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고 부모, 형제, 친구, 교사를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걸라고 했다. 학생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함께 울부짖고 열매이며 성령충만을 간구했다. 젊은 열혼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기독교계와 나라의 장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감

조국 해방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중앙교회

담임목사 최 상 도

교회주소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174
교회사무실 033) 261-7727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이 은 주

교회주소 춘천시 근화동 713-5
교회사무실 033) 257-7411

양문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 길 흥

교회주소 춘천시 후평1동 엘리트아파트
교회사무실 033) 251-5098

대한예수교장로회 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 재 호

교회주소 춘천시 후평2동 67-11
교회사무실 033) 252-8219

알로에마임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

이판호 이사 윤영진 집사

춘천시 호지동 756-3
TEL. 033) 242-2665 / 241-2489

귀금속 예술전문점 솔로몬

이익래 · 조순옥 집사

춘천이파매화점 1F
TEL. 033) 243-1423 / 243-3634

영광한의원

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이 용 규 집로

춘천시 후평2동 801-2
TEL. 033) 251-2003-4

영원한 사랑 큰 손

개인/단체 냉방작업반비

여 정 임 집사

춘천시 후평2동 689-25 2층501
공무원APT B동 맞은편
TEL. 033) 253-1889